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2.29.(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8인(강건기, 박화선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2월에도 공영방송의 소임을 열심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해야 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사안과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현상에 치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 보도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각각의 현상>(나무)뿐 아니라 <현상이 일어난 배경과 구조,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법>(숲)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종합적으로 알려 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해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의사 정원이 늘어났을 때 우리 사회는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논의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공론장에서 적극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보도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토론이라도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가 끝장 토론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뉴스 형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와이드하게 토론을 기획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현안이 의대 증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필수 의료라든가 지역 의료에서 이미 공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의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초 하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또 같이 수반돼야 될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대 교육 문제라든가 수가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의사들의 요구라든가 의견들도 좀 반영해서 정부와 의사들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저희가 '뉴스프리즘'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생각입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요즘에 의대 증원 문제가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도 같이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들, 서울에 있는 의사 수가 몇 명이고 지방에 있는 의사 수의 필수 진료 의료 분야 의사 수가 몇 명이 부족하다 이런 수치가 아니라 정부에서 1년에 2천 명, 5년 동안 만 명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이게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고 2천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680명 이렇게 나오면 뭔가 좀 조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아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 아까 말씀하셨던 수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서울로 많이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 추가 인원 교육 환경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안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의료계가 지금 팩트는 팩트대로 이렇게 좀 균형 잡히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다 보니까 이런 수단들이 적절한지 조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로 복귀했다 30%로 복귀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흑색 선전이 되지 않도록 이제 언론사에서는 조금 더 이런 수치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자료화면 오사용, 2월 1일 '뉴스1번지'에서 서울 지역구 동작을 여론조사 자료화면에 현역인 판사출신 이수진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출신 이수진 의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리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저희는 의대 증원의 방향이 맞다고 해서 의사들의 이해라든가 의견을 소홀히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 부분은 충실히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직군이 자기들의 이해와 기득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한다는 건 직무의 공익성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어나갈 것입니다.

-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출신 이수진 의원 자료화면 오사용 부분은 좀 창피한데요. 사실은 제가 즉각 발견을 하고 조치(사과방송, 인터넷송고분 수정)는 했습니다마는 뉴스 전문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뉴스1번지'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저희 구성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현장잇슈] 갤럭시S24 통역기 들고 명동 거리 나갔습니다..."꽤 쓸 만한데 이거?",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Galaxy S24는 처음으로 AI가 내장된 휴대전화죠. 별도의 앱 없이 오프라인에서도 실시간 통·번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미리 살짝 제공받아 명동 거리로 들고 나가봤습니다. 과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데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지 영어, 말레이어, 일본어, 중국어로 외국 관광객들과 실제 인터뷰하며 바로 통.번역을 확인해보는 내용이라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갤럭시 S24 출시하며 광고를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기획이었는데, 일본어 통.번역 시 제모를 탈모로 번역하는 해프닝이 있어 상품 광고해준다는 오해는 살짝 피할 수 있었으나 신제품을 공영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할 듯 보입니다.

- [핫클릭] 전청조 "옥중에서 책 써서 피해보상 하고 싶어" 외, 희대의 사기꾼 정청조 재판 관련 소식과, 무술 유단자 경찰관의 지구대 침입자 제압 기사 보도 후 한국 출신으로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기 구 가수의 영국 '브릿 어워즈' 후보에 오른 노래 '(잇 고스 라이크) 나나나'를 소개하며 아나운서가 노래와 함께 율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신선해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통신 제품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에서 내놓는 단말기, 워치 이런 것들은 특정회사의 제품일 수도 있지만, 워낙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아이템이라서 저희가 다룰 때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제품 출시 행사할 때 그냥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다 노출시키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간접 광고라는 지적들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신제품 출시행사 하면 애플이라든가 다른 회사 신제품이나 신제품 출시 일정 같이 묶어서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갤럭시 S24 '현장잇슈' 코너는 TV수상기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용으로 만든 코너다 보니까 약간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시청자들에게 관심은 있고 클릭수는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라인용으로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줄여가면서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핫클릭' 코너는 강다운 아나운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구요. '핫클릭'이라는 코너가 아침에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무거운 뉴스 일변도에서 시청자들의 아침 기분을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버하지 않도록 선을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뉴스 카테고리 '제보'의 '제보영상' 코너에 2월에만 8개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영상 관련 사항을 보면 : 제목, 영상, 한 줄의 제보 영상 관련 내용이 전부이다. 영상 또한 소리가 나지 않아 제보 현장에 대한 현장감을 느낄 수 없었다. 영상 제보자들의 성의와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제보자의 연락처가 있으므로 담당 기자를 통한 제보자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에 제보영상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여 제보 영상과 기사내용을 함께 올리는 것이 제보영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송뉴스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TV의 제보영상 코너를 살펴보고 타 방송사의 제보영상 코너를 살펴보았다. 타 방송사는 제보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자막이 들어가 있었으며, 영상 속 현장 소리가 들려와 현실감을 더 해주어 시청자들로부터 제보 영상이지만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었다. 특히 기자를 통한 영상 현장에 대한 기사내용을 작성하여 제보 영상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신뢰성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연합뉴스TV도 제보영상이라고 하여 있는 그대로 제보영상을 올려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보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자의 눈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사내용을 작

성하여 보도를 해줌으로써 제보영상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 2월 07일 "역대급 의대 증원에 의협 파업 예고...일본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최덕재 연합뉴스 TV 경제부 기자 출연한 방송 뉴스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 시점에서 시청자들이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국내의 의과대 정원과 의료인의 수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가 연일 방송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합뉴스TV는 시청자가 현 이슈에 대하여 판단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얼마만큼 심도 깊게 방송을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에 그동안 의대 정원 관련 방송현황을 살펴 해보았다. 의대정원과 관련된 수시 보도방송 외에도 1년 동안 집중분석한 방송을 살펴보면 [배달잇슈] 의사는 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까 (2023년1월12일 방송)[뉴스워치] 줄이는 '응급실 뺑뺑이'...의대 정원 논의는 지지부진(2023년06월05일)[뉴스썩] "의대 정원 확대 필요" 공감대 / 더 뽑으면 필수의료 확충될까...수도권 쏠림도 / 의사단체 "일방적 의대 증원하면 강력 투쟁"(2023년10월18일) [연합뉴스TV 스페셜] 열풍 넘어 광풍! '의대 공화국' 대한민국(2024년01월14일) 등 꾸준한 기획 방송을 통해서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사 단체 정원 반대 확대에 대한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균형 잡힌 방송보도를 하고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2월 07일 "역대급 의대 증원에 의협 파업 예고...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뉴스포커스 방송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일본의 의료수용 증가 문제로 의대정원을 증원한 추이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 줌으로써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과 근무의사 수 비교는 국내 필수의료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확연히 구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는 꾸준한 기획방송을 통해서 보도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저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인력이라든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 온라인 쪽에 대한 신경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콘텐츠 조금 더 만드는 정도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 영상을 그 이후에 반영한 리포트라든가 단신이라든가 같이 붙여서 보여드리면 낫겠죠. 조금씩 인력 사정도 나아지고 있어서 전체를 다 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이 됐던 사안입니다.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의 사례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어 일본 출장을 통한 기획물을 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의대 증원을 통해 고령화 시대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필수 의료 문제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의대 증원 현안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기획을 통해 시청자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이자 부담 줄이는 팁은? 연속 보도 관련> 1월 31일 뉴스프라임에서 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세대출 갈아타기 쉽게 하는 방법, 신청 대상, 득실 등등을 앵커와 질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출연한 전문

가의 깔끔한 설명과 해설로 칭찬하는 데 쉽고, 편안하였습니다. 다만, 초청 전문가의 전세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서민층의 은행 대출을 조장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 전망으로 마무리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월 4일 뉴스 10에서 우려했던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문가의 상세한 방법과 소개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갈아타기 대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에서는 좀 더 뉴스 후 서민 생활에 미칠 여파까지 고려해서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뉴스센터 13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한 달 만에 4조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뉴스에서 상세하게 보도하는 내용이 오히려 전세대출 갈아타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시민 떨게 하는 들개.....일부 지자체, 집중포획까지 보도 관련> 2.13일 뉴스프라임에서 들개 출몰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은 물론, 유기견의 문제까지 20여 분간 집중해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와 들개를 다루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등 사회적 문제와 견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특히, 이웅종 교수님의 들개에 대한 대처법 등은 시청자가 잘 참고하기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들개를 포획, 입양 또는 안락사 등 사회적 교육 등을 통해 반려견화 등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려견이 유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적절한 보도였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서 결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지적하신 그 날짜별 흐름을 보면 약간 좀 그렇게 일조를 한 부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애초에 기획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나만 지금 전세 대출을 안 갈아타고 있구나 남들은 다 낮은 금리로 가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서 너도 나도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런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특히 전문가 대담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질문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들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들개를 만났을 때 안전한 대처방법 같은 것도 시청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 소개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유죄에 '양육비 미투' 캠페인, 해당 보도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사이트 '배드 파더스'의 운영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어 양육자들은 양육비를 받을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직접 미지급자의 신상을 올리는 '양육비 미투'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도 전합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인터뷰나 보도 말미에 언급한 양육비 지급 비율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육자들이 소송 이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강조하는 내용에 배

드 파더스 운영자 구분창 대표의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구 대표가 해당 보도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정책이나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인 만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인터뷰가 연관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드 파더스 운영자의 유죄가 인정된 이후 미투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 역시 인터넷 등에 상대방의 신상을 기재하여 피해사실을 올리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가 인터뷰를 다양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드 파더스' 운영자보다는 법률 전문가라든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조금 더 성의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 기자가 조금 사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드 파더스'의 미투 캠페인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덧붙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화선 위원(서면제출)

[뉴스프리즘]우후죽순 만들더니...질어지는 대학 '폐교'그림자 _ 2월 19일,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의 생존의 위기에 대한 기획기사로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에 폐교되는 학교들서부터 2000년 이후 사립대가 이미 22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지방대의 붕괴는 지역 경제의 붕괴, 지역사회의 붕괴, 나아가 지방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시장경제 논리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이러한 재정문제를 등록금 인상 및 한정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는 폐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슈의 제기는 적절했지만, 인구통계 DB를 보면 향후 20년간 학령인구의 감소수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실제 입학정원을 몇%까지 줄여야하는지에 대한 예정된 미래에 대한 보도가 나왔으면 문제의식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포스텍을 제시했는데, 포스텍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특수한 사례이고, 대학 자체 혁신사례로 미네르바대학을 제시했는데, 미네르바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가 없는 대학 사례로 대학 폐교에 대한 혁신노력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사례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선택적 육성과 폐교가 불가피한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폐교를 기업의 연수원으로 유치한 다던지,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교육의 장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지방대의 폐교, 아울러 지방의 붕괴를 막는 하나의 단초가 될것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포스텍이 지역 대학의 일반적인 성공 내지 차별화 사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포스텍은 처음부터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반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에서 신규 진입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생존방안으

로 가야 할 길로 포스텍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피부에 와닿을 사례를 구해서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안성희 위원

- [현장잇슈] 갤럭시S24 통역기 들고 명동 거리 나갔습니다..."꽤 쓸 만한데 이거?" (1/24), 최근 국내 기업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의 'AI 통·번역 기능'에 대해 실제 유용할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현장잇슈'에서 외국인들과 실시간 소통에 아무 불편함이 없을지 알아보기 위해 관광 명소인 '명동'을 찾아 직접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에도 앱을 통해 통·번역 기능을 사용해왔지만 번거롭고 제대로 통·번역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 취재로 'AI 통·번역 기능'이 실제 유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대입 봉사활동 제외 영향?'...수도권 혈액 보유량 급감 (2/8), [출근길 인터뷰] 전국 혈액 보유량 '뚝'...텅 빈 혈액 저장고 (1/24) 코로나19 이후 혈액 수급 비상사태라는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헌혈 봉사활동이 대입에서 빠지면서 고교생 개인 헌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여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헌혈 가능 인구 100명 중 3.34명 정도만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와 혈액 수요 증가로 향후에는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1월 24일자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헌혈 증진을 위해서 헌혈자 예우 강화 방안, 즉 다양한 헌혈 우대 제도를 개발하고 헌혈 공과제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와 협의 중임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만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이와 관련된 심층보도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지난 22년 3월 27일 연합뉴스TV 스페셜(221회) 「'코로나19의 그늘, '혈액수급' 비상사태」에서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과 혈액 부족의 근본 원인을 꽤 심층적으로 짚어 보는 구성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 타 매체에서 코로나19 이후 헌혈 급감으로 소아나 난치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특정 혈액제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위중 환자들이 원정 진료까지 다니고 있는 현실이라는 보도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보다 2배 이상 비싼 혈장을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헌혈을 통한 혈액 수급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헌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 심층취재 및 기획 등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격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다루기 힘든 다양한 유튜브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작하겠습니다.

- 저희도 이제 창사 10년이 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 흐름만 쫓아가지 않고 저희가 조금 캠페인이라든가 사회의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 문제도 적십자사와 저희가 한번 공동 기획을 하든가 해서 캠페인으로 다뤄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경제·산업 관련 보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보도 패턴을 좀 살펴보니 부동산, 주가 동향, 정부 발표 정도의 내용들이 단신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찾아보면 저출산 영향이라거나 산업계나 기업들 현안에 대해서 다뤄볼 만한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여건이 아니라 해도 경제·산업뉴스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또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니, 최근에는 경제 카테고리에 의대 증원 관련 보도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20여개 정도의 뉴스가 노출되는데, 제가 살펴본 날에는 절반 이상이 해당뉴스였습니다. 평소에도 경제·산업 관련 뉴스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경제 뉴스 찾는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불편감을 줄 소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 이슈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 소비자심리지수, 두 달 연속 '낙관' 유지(송고시간 2024-02-20 08:21:30), 27초 분량의 짧은 내용이었는데, 남성 앵커의 작은 발음 실수가 있었는데. "...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심리가 낙관적인 점임을 낙관점임을" 자막실수 못지않게 계속 유의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산업 뉴스가 좀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경제부가 있긴 하지만 인력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거시경제 정책 위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기사도 적고요. 금융 기사도 적습니다. 산업 쪽을 좀 다루는 게 있다고 하면 그래도 소비자하고 관련된 유통 쪽이라든가 이런 쪽만 치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경제부와는 별도로 산업부를 신설해서 재계 특히 산업 분야 뉴스를 많이 다뤄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료 분야가 경제 카테고리의 홈페이지에 배치가 돼 있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의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공급자 편의적인 발상인 거죠. 저희 경제부에서 의료 분야를 다룬다고 해서 의료 콘텐츠를 경제 부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의아하지 않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앵커들이 좀더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유의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출근길 인터뷰] 어린이들이 미래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공약은?(2.6.),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각 당의 본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단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후보들에게 건의하는 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 발휘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가 바로 투표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만 18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청년에 비해 아동, 청소년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아동복지 영역이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 정치권의 관심을 덜 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출근길 인터뷰'를 종종 시청하면서 이 코너가 재밌으면서도, 유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날 인터뷰 방송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공약이 가득한 상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정치권이 어린이들에 대한 공약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7년부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동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정부나 국회에 계속 건의하며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이를 알만한 얘기겠지만 업계와 무관한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생소한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는 몇 년 동안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아동학대, 아이들 행복지수, 코로나 속 아동권리, 어린이가 투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꾸준히 보도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사고를 전하는 여타 방송사의 뉴스와 비교했을 때 연합뉴스TV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점은 '언론의 공영성'이란 측면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와 영역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잘 전해줄 수 있는 보도전문매체로서 지금과 같이 충실한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칭찬해 주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동을 비롯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갖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거나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